

# 綜合學術大會의 發展方向



李相洙  
(韓國科學技術院教授)

國內의 많은 機關에서 先進國의 碩學이나 經驗많은 技術者를 短期間불러서, 세미나, 워크숍, 강연등을 시키고 있는데, 招請되는 相對方 科學者 또는 技術者가 韓國出身일때 우리는 더욱 많은 率直한 意見を 들을 수 있어서 언제나 그 成果가 두드러지고 또 마음으로 흐뭇하게 느끼게 된다.

이와 같은 成果를 바라는 交流의 한 形態가 바로 우리가 過去 여러차례에 걸쳐서 실시해 온 「國內外 韓國科學技術者綜合學術大會」이며, 지난 4月에는 在歐科學者와 技術者의 參加아래 第8次大會를 마친 바 있다.

이 綜合學術大會는 回數를 거듭하는 過程에서 漸次 그 內容이 알차게 되었고 또 科技總의 學術大會 運營도 크게 發展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綜合學術大會의 成果가 漸進的으로 向上되어 나가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此際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學術大會의 內容을 알차게 하는 努力을 하고 또 이때까지 蓄積되어온 여러가지 批判의 소리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한다.

우선 이 綜合學術大會가 어떻게 해서 始作됐는지 發生過程을 살펴보면, 過去 70年代에 在外와 韓國 科學技術者間의 交流의 必要性을 느끼고 있을 바로 그때, 科學技術밖의 次元에 屬하는 일이 생겨났다. 극히 소수에 불과했으나 在外科學者나 技術者들 가운데는 우리나라 政府에 對하여 批判의인 態度를 갖는 경우가 늘어나기 始作했다.

그리하여 在美·在歐 科技協會를 조직해서 그들이 뭉치게 하는 것이 좋겠고, 또 이들을 故國을 訪問케 하므로써 理解와 協助가 이루어질 수 있는 一石二鳥의 方案으로서 國內外韓國科學技術者綜合學術大會를 열게 된것 같다.

이러한 우리의 試圖는 적중하게 되어 전후 8회에 걸친 盛大한 綜合學術大會로 紐帶가 強化되었고 새

---

로운 祖國觀도 심어주게 되었다. 물론 여기에는 主催했던 科技總이 總力을 다해서 이 綜合學術大會가 所期의 成果를 거둘 수 있게 努力하므로써 實効를 거두게 된 것이다.

이러하여 國內外韓國科學技術者綜合學術大會는 正確하고도 迅速한 Proceeding의 發刊, 會議運營등에선 어느 國際學術大會에 遜色없이 잘 하여 나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內容面에 있어서는 더욱 發展시켜야 할 소지를 많이 갖고 있으며 우리는 다시 한번 이 學術大會의 必要성과 效果를 생각하게 된다.

이 大會의 內實을 期하기 爲해서 첫째로 생각나는 것이 이 大會가 지닌 「學術交流와 故國訪問」이란 二元的 要素이다. 이 두 目的 가운데에서 하나에만 置重한다면,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學術交流에 두어야 한다. 學術交流에 置重할 때에는 正式으로 學術大會論文接收節次를 밝게 하고 參加範圍도 全世界에 나가 있는 韓國科學者, 技術者를 對象으로 해야 하겠다. 그러나 여기에도 問題點이 있다. 果然 在外韓國科學者, 技術者들이 國際學會의 背景이 없는 이 綜合學術大會에 크게 呼應하여 參加할 것인가하는 點이다.

다음에 또 하나의 發展的인 方法이 있겠다. 즉 綜合學會大會는 母國訪問의 뜻을 內包케 하되 國際會議과 같이(例 IUPAP: 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physics는 每3年마다 開催) 3年마다 한번씩 열고, 다른 해에는 選擇된 分野에서 重點的인 심포지움, 워크샵 또는 講演會를 開催해서 實質的인 學術交流成果를 내자는 것이다. 이때 對象으로 하는 韓國科學者, 技術者는 在美·在歐를 통털어서 對象으로 하게 되면, 選擇된 한 分野의 汎世界的인 모임이 되겠다.

다만 問題點이 있다면, 이 方式은 초청되는 韓國科學者, 技術者들이 旅費와 honorarium을 바랄 것이고, 따라서 豫算에 있어서도 과다지출이 불가피하겠으며 또한 分野에 따라서는 國內科學者, 技術者의 參加範圍가 축소될 수도 있다. 年次的으로 개최해 오던 綜合學術大會가 數年에 한번씩으로 바뀌어져서 아쉬운 感은 있으나, 이 方法에서 內實을 期할 수 있는 좋은 成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産業界의 參與를 크게 勸獎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흔히 産業界에서는 自己企業에 直結되는 技術分野에 對해서는 워크샵 이상의 hand to hand technology transfer를 實施해 오고 있다는 點을 勘案해, advanced technology를 잊지 않기를 바란다.

어느 한 分野를 選擇해서 심포지움, 워크샵을 할 때, 그 分野의 國內學會와의 協調를 잊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한다. 學會를 제쳐 놓고, 一部企業이나 研究人力에다 在外科學者, 技術者를 連結할 때, 많은 國家의 경비를 써가며 招請하는 그들의 이용이 未洽하게 될 憂慮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在外韓國科學技術者와 國內科學, 技術者, 企業과의 相互協調가 꼭 있어야 함은 再論할 必要가 없겠다. 지금 종합학술대회 的成果를 暢達하는 方法에 있어서 두가지를 생각하여 보았지만 앞에서 指摘한 問題點만 補完할 수 있다면 두번째 方法이 理想的인 것으로 본다. 이 方法만이 「學術交流의 內實을 期하고 故國訪問」의 두가지 目的을 조화있게 效率的으로 成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